

아랍에미리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 적	84천 km ²	G D P	3,457억 달러 (2015)
인 구	9.52백만 명 (2015)	1 인 당 GDP	36,315달러 (2015)
정 치 체 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UAE Dirham (Dh)
대 외 정 책	친서방 정책	환 율(달러당)	3.67 (2015)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와 6.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7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또한, 두바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며, 정부는 건설, 유통, 관광, 물류,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아랍의 봄”)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정정불안을 겪고 있으나, UAE는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아부다비의 군주)의 통치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해 저조한 경제성장 전망

-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는 2000년대 들어 두바이를 중심으로 금융, 물류,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여 (GDP의 약 35%를 점유) 국제유가 변동과 원유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2013년부터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2년 7.2%에서 2013년 4.3%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도 4.6%로 4%대에 머물렀음. 2015년에는 비석유 부문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석유 부문의 성장률이 2.2%로 전년(4.0%) 대비 대폭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은 3.9%로 더욱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추세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는 재정수입 감소와 그로 인한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계획의 지연 또는 축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그치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됨.
 - IMF는 2016년 4월의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에서 UAE의 2016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측하였으나, EIU는 2016년 7월 Country Report에서 UAE 경제가 석유수출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악화 전망

- 석유수출 수입(收入)이 UAE 재정수입의 약 80%를 점유함에 따라 원유수출에 의한 재정수입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적자 여부와 폭이 좌우됨.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2015년에 GDP 대비 -4.9%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의 가속화로 인해 2016년에는 -11%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IMF는 2016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UAE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수준을 2015년(67.5달러)보다 상승한 71.8달러로 전망하였음.

- 연방 정부의 2016년 예산은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1% 삭감한 4,850억 디르함(약 132억 달러)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의 추가 삭감을 통해 정부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연방 정부는 재정수지 개선책의 일환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였으며, 2016년 1월 13일 부가가치세가 5%의 세율로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연방 정부의 연간 재정수입 증가분은 27억~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UAE를 포함한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 회원국들은 앞서 2015년 12월 7일 기존의 무세(無稅) 정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 6개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동성 증가 제한, 부동산 임대료 안정 등으로 인해 하향 안정될 전망

○ 2013년부터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경기의 과열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료 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1.1%에서 2014년 2.4%, 2015년 4.1%로 계속 급등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저유가 기조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는 M2(총통화) 증가율의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연방 중앙은행도 2015년 12월 당시 미 연준(FRB)의 기준금리 인상 검토에 맞춰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함에 따라 유동성 공급 증가가 제한됨.

- 아울러 전력, 수도, 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 감축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과열의 진정으로 부동산 매매가격 및 임대료 상승률이 낮아지고,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0.9% 포인트 하락한 3.2%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o	2016 ^f
경제성장률	7.2	4.3	4.6	3.9	2.4
재정수지 / GDP	10.9	10.4	5.0	-4.9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0.7	1.1	2.4	4.1	3.2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여전히 편중된 경제구조

- 연방 및 각 토후국 차원의 경제구조 다변화 노력이 계속되어, 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관광, 금융, 물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연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경제성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 중동 지역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의 사업환경은 경제발전 및 비석유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디딤돌

-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양호한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며, 따라서 경제발전은 물론 비석유 부문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여타 산유국들보다 우위에 있음.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 의하면, UAE는 조사대상 189개국 중 납세 부문에서 1위, 건축 허가 부문에서 2위, 전력 공급 부문에서 4위, 자산 등기 부문에서 10위, 계약 이행 부문에서 18위 등 종합순위 31위로 중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 다른 GCC 회원국들은 바레인 65위, 카타르 68위, 오만 70위, 사우디아라비아 82위, 쿠웨이트 101위로 평가되어 UAE에 비해 사업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매장량 세계 8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7위의 자원 부국

- UAE는 2015년 말 기준 978억 배럴의 원유(세계 8위)와 6.1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세계 7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특히 원유 매장량은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약 8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 GDP의 60%를 차지하는 아부다비가 UAE 전체 원유 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보유함.
- 일일 원유 생산량은 390만 배럴(2015년)로 세계 8위이며, 신규 유전의 개발 등으로 2010년부터 산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558억 m³(2015년)로 세계 15위임.
- 이외에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비에너지 광물자원의 개발잠재력도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비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와 경제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2008년 11월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다변화된 고부가가치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동 전략은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방위산업, 제약-생명공학, 관광, 의료 등의 Global Focus Sectors, 수송-무역-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의 Regional Focus Sectors의 전략적 확충을 추구하고 있음.
- 동 전략에 의해 아부다비 경제가 2030년까지 달성코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경제성장률 6%(비석유 부문은 7%), 실질 GDP 중 비석유 부문 비중 64%, 실질 GDP 대비 비석유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임.
- 아울러 아부다비 정부는 최근 5개년 개발계획(2016~20년)을 새로이 수립하여 인프라 개발, 비석유 부문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중계무역기지 및 금융 허브 역할 담당

-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임.
- 특히 석유, 은행, 상업용 부동산 임대 외에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 적용(5%)으로 낮은 수준임.
- 또한 6개월 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UAE는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는 등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임.

-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없으며, 특히 약 30여개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인정되고, 무세(無稅) 혜택이 주어짐.

3. 대외거래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하면 2015년 UAE의 석유수출액은 523.7억 달러로 동년 상품수출의 15.7%를 차지하여,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원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2년 21.3%에서 2015년 6.2%로 급격히 위축되었음.
- 2016년에도 저유가 추세로 인한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 각종 개발사업 관련 기술도입에 따른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경상수지는 GDP 대비 -1.3%의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저유가 추세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감소 전망

- 외환보유액은 2012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추세 속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 등에 힘입어 2015년 말 전년 대비 19.8% 증가한 925.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6에 의하면, UAE는 2015년 한 해 동안 GCC 6개국 중 가장 많은 109.8억 달러의 FDI를 유치하였음. 특히 산업다각화에 따라 비석유 부문의 FDI 유치 비중이 상승하였음.

※ 연간 FDI 유입액(억 달러) : 88.3(2012) → 94.9(2013) → 108.2(2014) → 109.8(2015)

- 그러나 201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따라 연말 외환보유액이 838.7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전년(3.4개월분)보다 다소 악화된 3.0개월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외환보유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단기 대외지급능력의 급속한 악화 가능성은 낮은 편

- 각종 인프라 개발, 아부다비와 두바이 외의 토후국들의 민심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외채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6년 말에는 6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두바이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2011년 146.2%까지 급등했던 단기 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금융위기 사태 해소로 2015년 말 77.7%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6년 말에는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외채규모 증가와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해 86% 수준으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D.S.R도 2012년 말 7.1%에서 2015년 말 10.6%로 상승한 데 이어 2016년 말에는 1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연방 정부와 각 토후국 정부들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국채 발행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총외채잔액/GDP 비율과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 및 D.S.R이 모두 상승하여 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아부다비 정부는 2016년 4월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3.12%의 금리조건(미 국채보다 1.25% 더 높은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아부다비의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연방 정부와 다른 토후국 정부들도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UAE의 외채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 국부펀드를 통한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중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에 따르면, 1976년 설립된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운용자산은 2015년 말 기준 약 7,920억 달러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8,476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음.
- 이외에 두바이투자회사(ICD) 1,960억 달러,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 1,110억 달러, 아부다비국제석유투자회사(IPIC) 663억 달러, Mubadala 개발회사 663억 달러, 에미리트투자청(EIA) 150억 달러, 라스 알 하이 마흐 투자청(RAKIA) 12억 달러 등 전체적으로 1.2조 달러 이상의 국부펀드를 운용 중임.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o	2016 ^t
경 상 수 지	79,564	74,115	58,723	21,554	-4,204
경 상 수 지 / G D P	21.3	19.1	14.7	6.2	-1.3
상 품 수 지	141,680	141,018	127,749	89,382	69,124
수 출	359,727	370,977	367,547	333,324	315,994
수 입	218,047	229,959	239,798	243,942	246,870
외 환 보 유 액	45,826	66,951	77,242	92,572	83,872
총 외 채 잔 액	144,351	171,828	195,909	207,211	213,920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6	44.4	49.0	59.9	65.8
D . S . R	7.1	7.2	8.5	10.6	11.7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정치적 안정 지속

- UAE의 정치체제는 7개 토후국이 연방 정부를 구성(1971년 출범)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이며, 토후국별로는 왕정을 취하고 있음.

-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군주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하에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현재 68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나, 그의 이복동생인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이미 실질적인 통치자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어 Sheikh Khalifa의 유고시 왕위 및 대통령직 계승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왕족 일가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 국내외의 민주주의 요구가 있으나 미약한 수준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5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UAE는 167개국 가운데 148위로 하위권 그룹에 속하여 민주주의 단계가 낮음.
-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반정부, 반이슬람 표현 의견 게재 혐의로 고발되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방되는 등 강경 대응으로 그 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UAE 정부는 현재 무슬림형제단의 지부인 al-Islah 등 자국 내 이슬람주의 정치세력 및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발호를 적극 억제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 UAE는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여파를 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됨.

- 소득수준이 높고, 집권층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덜하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 (약 85%)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보기관, 군대, 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당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세력화가 어려움.

□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으로 사회적 안정 강화

- 연방 정부는 노동 관련 제도를 개정, 2016년 12월부터 직원 수 50인 이상의 기업은 월급이 2,000디르함(약 60만원) 미만인 직원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토록 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연방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단체 숙소의 위치와 위생, 의료 시설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개편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토후국간 소득격차 확대는 잠재적 불안요소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토후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 증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연방정부는 북부 토후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과 식료품 보조금제 도입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기간 내에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예멘 내전 개입, 시리아 IS 거점 폭격 참여 등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 공격 가능성 제기

- UAE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하여 지상군을 파병하고(수니파 세력 지원),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이슬람국가)의 시리아 내 거점에 대한 폭격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UAE를 겨냥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보복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UAE 정부는 6월 15일 예멘 내전에의 직접적 참여를 종료하되, 대테러 작전 수행을 위해 UAE 군대의 예멘 내 주둔은 당분간 지속한다고 발표하였음.

3. 국제관계

□ 안보 및 투자유치 등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 UAE는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내전에 휘말린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가능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미 국무부는 2016년 7월 IS 격퇴전의 일환으로 UAE에 7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폭탄, 유도장치 탄약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음. 현재 UAE의 al-Dhafra 공군기지에는 3,500여명의 미군 병력과 IS 공습 작전 등에 사용되는 전투기, 정찰기 등이 파견되어 있음.
- 아울러 서방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과도 원유 수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UAE의 대 인도 상품수출액은 2004년 38.7억 달러에서 2014년 129.8억 달러로 10년 간 3.3배 이상, 대 중국 상품수출액은 2004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28.8억 달러로 10년 간 10.6배 이상 증가하였음.

□ GCC의 내부 결속 강화, 발전은 다소 부진

- 걸프 지역의 6개 수니파 왕정 국가들의 협력체인 GCC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및 역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유럽연합(EU)과 같은 성격의 협력체인 걸프연합(Gulf Union)의 결성에 대한 구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내해(內海) 영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걸프중앙은행의 소재지로 결정된 데 반발한 UAE의 GCC 통화동맹 탈퇴, 무슬림형제단을 후원하는 카타르에 대한 자국 대사 소환 등 갈등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을 자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반면,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며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음.

□ 이란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양면적 상황 유지

- 이란은 최근 수년 간 UN과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한 결과 UAE 제1의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동시에 UAE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Abu Musa, Greater Tunb, Lesser Tunb의 3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2015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223억 8,490만 달러(단기 34억 9,850만 달러, 중장기 188억 8,640만 달러)로 연체잔액은 1,540만 달러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UAE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UAE의 신용등급을 계속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 평가일 현재 Moody's는 UAE와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모두 Aa2로 평가하고 있으며, Fitch는 UAE의 신용등급은 평가하지 않는 대신 아부다비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는 UAE를 구성하는 6개 토후국 중 가장 많은 원유매장량과 가장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바이 등 다른 토후국들의 재정적자 보전을 담당하는 등 연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UAE)	2 (2016. 1)	2 (2015. 1)
Moody's	(UAE)	Aa2 (2016. 5)	Aa2 (2016. 3)
	(아부다비)	Aa2 (2016. 5)	Aa2 (2016. 3)
Fitch	(아부다비)	AA (2016. 2)	AA (2015. 7)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80. 6. 18.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 협정 : 투자증진보호협정(2002), 이중과세방지협정(2003),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2006), 군사협력협정(2006), 문화협력협정(2007), 원자력협력협정(2009), 항공업무협정(2010)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2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제5위의 원유 수입대상국

○ UAE는 2015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2위의 수출대상국이자 제5위의 원유 수입대상국임. 2015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46.9억 달러로 전년(234.1억 달러) 대비 37.2% 감소하였음.

-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60.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8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6.8% 감소하였음.

※ 수입의 대폭 감소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함. UAE는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대상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이어 제3위였으나, 2015년에는 카타르와 이라크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증가하면서 제5위로 밀렸음.

< 표 4 >

한·UAE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주요 품목
수 출	5,737,664	7,211,628	6,076,775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수 입	18,122,897	16,194,256	8,614,672	원유, 석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6년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403건, 11억 8,443만 달러

V. 종합 의견

-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금융, 물류,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 부문이 GDP의 약 35%, 재정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와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2015년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하였으며, 2016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하여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거주민의 85%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등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미미함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2016년 중 쌍둥이 적자 발생이 전망되고 외채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상승하는 등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총액 1.2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운용이 외채상환능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중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의 사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연방을 주도하는 양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와 두바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노력에 의한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저유가에 따른 석유 부문의 침체를 상쇄하고 있음.

- 아울러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UAE(또는 아부다비)에 대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